

사우디, 석유보다 가스 개발로 선회

Saudi Aramco, 가스 개발 확대 ... 석유화학 · 발전 · 담수화의 핵심원료

사우디가 에너지 개발의 초점을 석유에서 가스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Saudi Aramco 고위 소식통은 “가스 개발이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 개발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Saudi Aramco 경영자였던 사다 알-후세이니는 “가스가 발전과 담수화 및 석유화학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스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석유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사우디의 생활수준이 갈수록 서구화되면서 가스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Saudi Aramco의 에너지 정책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Saudi Aramco가 지난 6년간 석유 생산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바람에 부산물인 가스 생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중동 에너지 전문 컨설팅기업 FACTS 글로벌 에너지에 따르면, 사우디의 가스 수요는 연평균 7% 증가해 2008년 하루 75억입방피트를 기록했다.

Saudi Aramco는 가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스 생산량을 하루 62억입방피트에서 2015년 90억입방피트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도가 다 된 유전을 가스전으로 교체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25>